

한국여성민우회
생활협동운동자료집 I

생활협동운동과 유기농산물직거래

1992 10

성평등도서관 여기



GL00004727

 서울시여성가족재단

한국여성민우회

1.7
6생

00004727

00



한국여성민우회

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-9
전화 313-1060 FAX 392-7844

생활협동운동 자료집 I

생활협동운동과 유기농산물직거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□ 자료집을 내면서 | 한성찬/1 |
| □ 인사말 | 한명숙/2 |
| □ 소비자의 힘으로 인간공동체를 | 이효재/3 |
| □ 생협운동의 발전방향과 과제 | 서혜란/5 |
| □ 생협운동과 유기농산물 직거래 활동 | 서혜란/13 |
| ◦ 수입농산물과 소비자 | |
| ◦ 유기농산물을 먹는 이유 | |
| ◦ 농약과 화학비료, 꼭 써야 하나 | |
| ◦ 유기농업/가능한가? | |
| ◦ 지역에서 공동구입을 하는 이유 | |
| ◦ 직거래는 가격이 싸야만 하는가? | |
| □ 식품첨가물에 절여진 우리몸을 아시나요? | 김효순/27 |
| □ 생산에 얽힌 사연 | |
| ◦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| 김귀영/34 |
| ◦ 참쌀이 완전 상전이네 상전이야 | 이근숙/35 |
| — 미숫가루를 만들면서 | |
| ◦ 콩나물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련다 | 김옥분/37 |
| — 콩나물 재배기 | |

ii · 목차

◦ 뭐, 얼어죽을 유기농법을 고집하며 — 실패한 오이농사	박종권/41
◦ 진정한 직거래의 의미는 생산자의 아픔을 아는 것	이창용/42
◦ 깨끗한 쌀이 숨쉬고 있는 철원평야를 찾아서	정대은/44
◦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며 기계를 돌립니다 — 가루비누공장, 협성생산공동체	박영숙/47
◦ 무공해 천연세제에 바친 한평생 — 푸른샘/샘이랑을 만든 「한국소」씨를 찾아서	정대은/49
◦ 바나나와 딸기, 토마토이야기	정대은/50
◦ 물로키운 딸기, 씻지 말고 그냥 드세요	박영숙/52
◦ 수박이라고 다 같은 수박은 아니다	이혜라/56
◦ 태평양 창고는 60℃ — 우리밀 시급하다	박중신/57
□ 소비자 생산지 방문기	
◦ 생산자에게서 느낀 도덕적 결단	현일숙/62
◦ 살충제 대신 정성, 제초제 대신 땀으로 키우더라	윤명화/64
◦ 금방 낳은 달걀은 참 따뜻했어요	유강민/66
□ 소비자 이야기	
◦ 시간은 걸리는 법, 실망은 말자	정경숙/70
◦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찾다가	김영숙/71
◦ 옆집을 모르고 지내다니	김영애/73
□ 우리 환경 우리 손으로/75	